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부제 제25489호] 주제 105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  
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  
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  
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려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  
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  
장 리영길동지, 조선인  
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  
장 박정천동지, 조선인민  
군 제11군단장인 육군  
소장 김영복동지가 맞이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인원 및 기재  
들의 동원준비상태와 훈련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  
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제525군  
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  
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  
조선작전지대 안의 특정대상물들  
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훈련을 시작할 때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드디어 서슬푸른 비수가 되여 남  
조선피의도들의 몸통아리를 천조  
각, 만조각으로 찢어발기고야말 일  
당백전투원들의 천백배 복수전이  
시작되었다.

전투원들은 적의 대상을  
돌려싸고 있는 높은 산고지들에  
나는 소리 없이, 눈깜박할 사이에

침투하여 외부경비역 향소멸을  
위한 파감한 전투행동을 진행  
하였다.

불시에 날아든 적승기들에서  
바줄강하로 줄지어 쏟아져내린  
전투원들이 저항하는 적들을 어  
여가지 전투행동조법으로 쓸어  
버리며 대상물로 벼락같이 돌입  
하였다.

뒤이어 경수총기들에서 용감하  
게 활공락하산을 타고 날쌔마  
착지한 전투원들도 적들에게

몰사격을 들이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용맹한 전투원들이 적의 특정  
대상을 종횡무진 짓이거대  
며 말려진 전투임무를 자립적  
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잘하오, 잘  
해, 적들이 반항은 고사하고  
몸뚱아리를 숨길 땀도 없겠소  
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  
였다.

쿵쿵듯이 울리는 총성과 수류

한이 작렬하는 속에 억  
적 폐당들을 모조리 사  
살한 전투원들은 심판  
대에 끌어 앉힐 악당들  
을 생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어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화력호출을  
받은 전선장거리포병들  
이 적의 소굴을 완전히  
죽탕쳐버리는 일제  
사격을 가했으며 멀찍  
의 포탄들은 특정대상  
물을 사정없이 두들겨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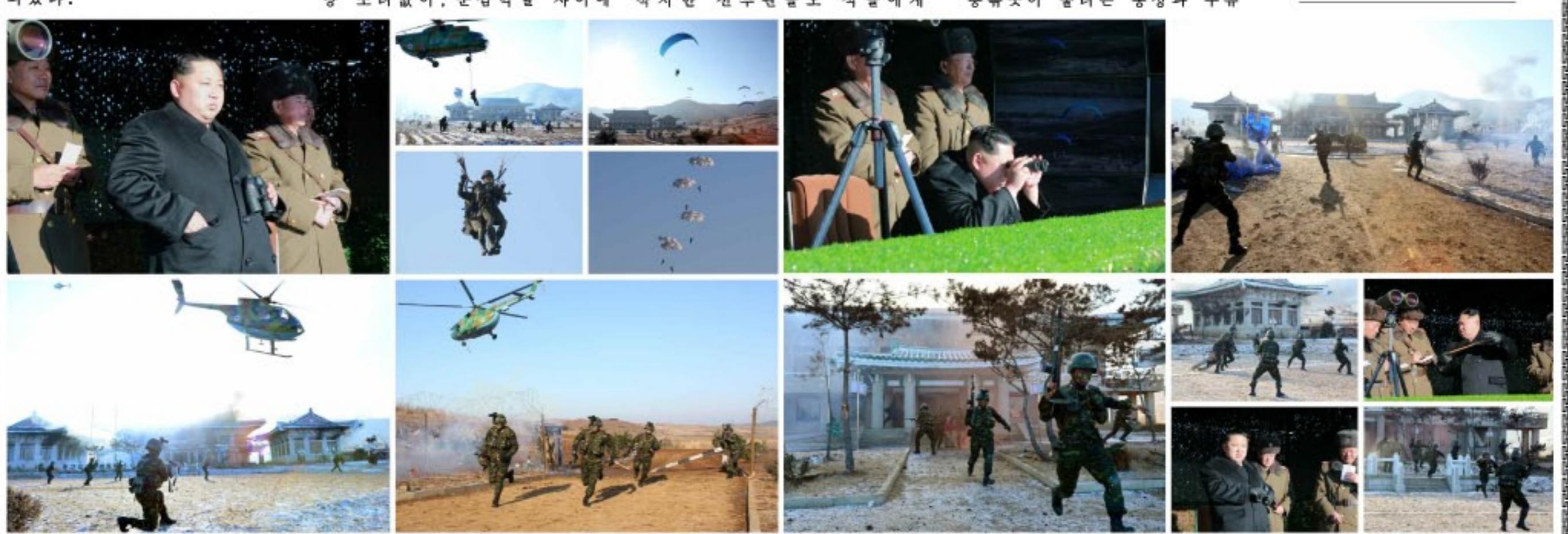
타래처오르는 화염과  
연기기둥으로 하여 적의  
소굴은 아비규환의 생지  
옥으로 화하였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  
다를 기어이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  
조선피의도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쑤격멸의  
투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  
날, 천날을 땀에 젖어 위훈의 날  
과 달로 이어오며 부마를 멀찍이  
전투대오로 강화시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훈련을 통해서도 전군에 특수작전부대의 전투원들이 남반 백두산훈련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부를 활무대로 삼고 과감한 전투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 행동을 벌리자면 행군훈련, 사격 훈련, 수영훈련, 자연계선극복훈련 불길, 군력강화의 불바람속에 전투와 악전생존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치훈련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강도 높이 진행하여 유격전의 능수들로 전투력을 무진막강하게 다져가야 든든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에서 주제화, 현대화, 과학화를 철저히 실현할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치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을 만나 시여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특수작전

대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포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군령도의 빛나는 자축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폭포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언제 든 명령만 내리신다면 단숨에 꾀죄들을 쓸어버리고 청와대로 가는 길을 밟음직하게 열어드릴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점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제8차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우는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마쓰루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였고

김정은동지께서는 삼지연군에 모신 김정일영도자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그이께서는 스카우트들의 훈련용 보시며 스끼는 체력단련에도 좋고 대담성과 용감성을 키워주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삼지연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 철학관으로 꾸린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로씨야의 마쓰루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정예대로로 자파 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 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특히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부대장병들이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소식을 보도하였다.

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남동지,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명길동지가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었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드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결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운세하게 설레이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면서 사회주의농업근로자들의 뜻깊은 대회 합을 마친해주시고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안겨주시였

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드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결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사상과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으로 조국의 전야에 순결한 피와 땀을 끌으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농업근로자동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의 농근맹, 당의 농근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최후 승리

를 알탕기는데 적극 이바지 하시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절제히 관철하여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을 참다운 수령의 대중적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인 농업전선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잘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장지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여권나라에서 보도

##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 여러나라에서 결성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결성식이 5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김》주체사상연구협회, 기자, 문화인들의 《주체의 태양》김정일주체연구협회, 마리우포시 선군정치연구협회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인사들과 군종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김》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펠리체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회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로씨야 김정숙명청내성동맹 위원장 엘ена 비비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주성을 위한 인류의 봉사에서 가장 출판되는 12월 17일이 다가오고 있다. 바로 5년전의 이날

김정일동지께서 서거 5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행사를 의의 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우리에게는 김정일시대에 이르면 모든 전변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

나이제리아의 인터네트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퍼밀카스트로 루쓰동지의 서거에 즐음하여 우리나라 주재 꾸비데사관을 방문하시고 조의를 표시하신 소식도 올렸다.

로씨야의 데웨-로쓰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인문 《라이징 유럽》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체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펠리체프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 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있는 입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떼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치��으로 되는 파업들을 제시하였다.

로씨야의 데웨-로쓰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인디아인문 《라이징 유럽》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체연구협회 위원장 니콜라이 펠리체프가 선출되었다.

결성식에 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정예대로로 자파 난 조선인민군 제380대련 함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께서는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 특히 북부피해복구전선에서 부대장병들이 이룩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주석과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 영원한 그 빛발안고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리

인민의 영원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전설적인 절질한 그리움으로 불리는 12월의 이 강산에 노래가 울려 퍼진다. 가요 『당중앙의 불빛』의 은은한 선율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물없는 걱정을 물려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피로는 실장을 당중앙위원회의 뜻에 따라 놓고 당과 사상도 슬럼도 떨칠지도 같이 하며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야 합니다.』

역사의 순간에 대한 감명깊은 기록은 주식이며 아름답고 승고한 사상감정의 정취는 읊어아이다.

생활에서는 한편의 명곡이 몇십년의 세월에 대한 및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다.

가요 『당중앙의 불빛』이 창작된지도 3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명곡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랑은 더욱 캄프해지고 있다.

은하수 흐르는 수도의 이방 사람들은 모두다 잠들었어도 당중앙당창에 흐르는 불빛 솔기로 밝게 빛나네 아 빛나네...

당중앙의 불빛, 절정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얼마나 깊고깊은 추억을 새겨 준 시대인가.

노래가 오늘도 그토록 사랑들의 심금을 울려며 12월의 내 조국땅에 더욱 높이 울려지고 있는 것은 바로 평양의 구설구설에 반세기 이상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면도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위엄을 빛내이고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후생에서 세기적인 역할을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흥모와 그려움의 감정이 뜨겁게 급이치

## 가요 『당중앙의 불빛』을 들으며

고있기 때문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순간의 희소도 없이 위대한 현신의 날과 달을 정역적으로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풍만한 시형상과 은은한 선율로 감명 깊이 노래한 명곡 『당중앙의 불빛』.

가오는 당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비범한 예지로 청춘으로 이어나고 은하수 흐르는 깊은 밤에도 지침을 모르는 정력으로 부강조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꾸밀이며 거창한 벽의 새 터사를 창조해온 혁명의 선대들과 말리는 이전자에게 옮겨진 그 불빛을 신님의 등데로 가슴에 간직하고 역사의 모진 광풍속에서 승리의 길을 변함없이 엘어나간 역사의 나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기념비적영자의 징가는 세월이 흘러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인식교양적감회력을 있다.

또한 가오는 『어려운 아기의 유행을 지켜 잘 못 드는 어머니 마음이란가』와 같은 친근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가시향상을 통하여 인민의 행복을 천 가지 만가지로 꽂아펴워주시기 위해 깊은 밤, 이른새벽을 정직적인 활무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일정으로 가득 차워가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일화와 같은 흥모의 정을 뜨겁게 구하고있다.

연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표시하시였다. 어떤 일감을 놓고 몇시간

밤을 아파죽음을 귀중히 여기며 인민의 노래와 웃음을 귀중히 여기며 인민의 가톨릭 때도 있는데 그보다가 새벽

녘에라도 명태한 대답을 찾게 되면 그때

의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진정 당중앙의 불빛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향기로 뿐만 아니라 당중앙당창의 정신을 전하는데 그보다는 흥모의 정을

가오는 당중앙의 불빛에서 흐르는 불빛 습기로

예지로 밝게 빛나네』, 『은혜로운 사랑의 그 불빛 아래 인민의 행복이 꽂여여나

그 불빛과 더불어 우리 당은 인민의 생활속에 더 가까이, 더 깊숙이 자리리를

잡았고 그래서 인민은 당중앙의 불빛을 실장에 더욱 소중히 앓고 있다.

당중앙당창가의 불빛은 전대미문의 대세 양을 당한 조국의 특별방에 사회주의 선정을 펼친 파사로운 및말이었고 새 교복을 떨쳐웨온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었으며 우리 힘으로 만든 첫 지하전동차를 떠나보내며 영웅적김 일성-김정일로 동행이 터치면 『조선로동당 만세!』의 환호였다.

한편의 명곡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로 되세기는 이 시각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정은 참으로 드넓다.

한없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12월에 명곡 『당중앙의 불빛』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전리를 가슴에 더욱 깊이 새기고있다.

명곡의 무한한 생명력을 끌고 어떤 친

지지과가 물이자와도 대를 이어 우리 당

만을 끌어안고 밀고 따를 천민의 심장에 세제오르는 충정의 끝없는 분출이다.

당중앙의 불빛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할 그려움의 불빛. 승

리의 불빛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기고 가신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고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자고 조국인의 새

건설, 인민사랑의 새 선율을 수놓아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명도

의 자주자우를 전하며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는 당중앙의 불빛.

위대한 수령님들과 꽂길으신 자애로운

인품, 인민의 운명을 끌어내고 일상에서

자신의 정신을 짐작하여 사색하느라며 정신

의 가톨릭 때도 있는데 그보다는 소박한 편지도 보이주시는 그 위대한 명도봉모에 우리 인민모두가 대혹되었다.

말 못하는 마음속상처를 안은 한 인간의 운명을 두고 당시도록 꺼집을 모르면 당중앙당창가의 불빛은 진정 이 땅의 천만

자식들을 한풀에 다 알고 애지중지 사랑

을 부어주고 내세워 주는 위대한 어머니

의 모습이었다.

그 불빛과 더불어 우리 당은 인민의

강국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우리의

기쁨은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래

『당중앙의 불빛』을 실장으로 부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파라 이 하늘아

이 땅에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님됨이 풍물꽃이나는 우리의 사회주의

인민을 더 높이 끌어올리고자 한다.

김 성 풍

제 20 차 전국 체육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국가과학원의 전시회장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이

번에 사격선수들의 자세유지능

력 및 어머 제육통속선수들의

신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였고 우리 선수들은 제 3 1 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활약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시회장에 있는 시

국가과학원 박원철동무는 이아기

하고 하시면서 필요한

제작에 대주고 어느 나라

종종으로 대장관께서는

제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국

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는데

나름의 기쁨이었다.

그 후 대장 일군들도 부터

우리가 수상이나 되는 큰 종

을 주돌하여 만들려고 한다

는 사실을 보고 말고 신

우리 대장은 당장은

제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국

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는데

나름의 기쁨이었다.

오늘도 세남의 시작과 새

벽 5 시, 정오를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 『김 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 경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꽂힐이 머리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진 명

# 주체체육발전의 밝은 미래를 여기에서 본다

제 20 차 전국 체육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국가과학원의 전시회장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이

번에 사격선수들의 자세유지능

력 및 어머 제육통속선수들의

신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였고 우리 선수들은 제 3 1 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활약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시회장에 있는 시

국가과학원 박원철동무는 이아기

하고 하시면서 필요한

제작에 대주고 어느 나라

종종으로 대장관께서는

제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국

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는데

나름의 기쁨이었다.

그 후 대장 일군들도 부터

우리가 수상이나 되는 큰 종

을 주돌하여 만들려고 한다

는 사실을 보고 말고 신

우리 대장은 당장은

제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국

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는데

나름의 기쁨이었다.

오늘도 세남의 시작과 새

벽 5 시, 정오를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 『김 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 경일 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꽂힐이 머리치고 있다.

본사기자 김 진 명

제 20 차 전국 체육

과학기술성과 전시회장을 돌아보고

국가과학원의 전시회장에서도 마

찬가지였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은 이

번에 사격선수들의 자세유지능

력 및 어머 제육통속선수들의

신체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

였고 우리 선수들은 제 3 1 차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활약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전시회장에 있는 시

국가과학원 박원철동무는 이아기

하고 하시면서 필요한

제작에 대주고 어느 나라

종종으로 대장관께서는

제작에 대한 칭찬과 함께 조국

의 존엄과 명예를 높이는데

나름의 기쁨이었다.

그 후 대장 일군들도 부터

우리가 수상이나 되는 큰 종

</

## 자주통일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우리 겨레가 위대한 김정일同志를 전한 뜻밖에 일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에 부르던 1·2월의 그 나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망각 속에 묻는다지만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겨레의 뜨거운 경모심은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가장 숭고하고 열렬한 조국애, 민족애를 지니시고 본래의 정직적인 명도와 헌신으로 통일위업실현의 흔은 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同志을 전한 날에 청원의 높이 달들이 모여드는 것은 우리 겨레의 드림 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종을 판별하는 것을 필행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학识한 선군혁명행도로 조선반도의 정화를 굳건히 수호하시며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점쳐주신 것은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한 업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적 통일로 선을 꾸밀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두生態은 위대한 김정일同志의 정직적인 령도에 의하여 세대를 이어 힘차게 밟아쳤으며 그 과정에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同志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 력을 지니시고 온 겨레를 수령님의 조국통일유종판에 힘써 조국통일의 명도로 유포하였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성의 덤이었다. 세계에도 조국과 분별로 가슴아파하시고 별들이 조는 깊은 밤에도 남녘동포들을 대한 걱정으로 잠 드신 우리 수령님이 있었기에

그이께서 남기신 생의 마지막원제도 조국통일문건에 및나는 불멸의 글방이었다. 수령님의 환평생은 그대로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의 위대한 생애였다. 그 길에서 수령님에서는 겨레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기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사상파로선, 그이께서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위업실현의 양육적 담보를 마련해주신 불灭출의 성과이다.

사회주의의 보루, 자주의 성새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미세를 두둔미로 하는 세속주의의 활세력을 극진히 반문화국교립암살학동은 역사에 전문후무한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대세력의 침략책동을 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루려면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충직한 사명감과 선례를 기울여온 풍습으로 풀어놓으신 원래 한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향후 우에 구상을 풀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것은 혁사와 혁신이 가르치는 피의 교훈이며 전례이다.

위대한 김정일同志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